

고용시장 '춘래불사춘'... 1분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33개

고용노동부, 2025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실업급여 수급 역대 최대
기업 구인인원은 4만5천 줄고 구직인원은 6만3천 늘고
"기업들,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채용 수요 줄이고 있는 듯"

올해 1분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3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5000명이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4000명(1.0%) 늘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 역시 지난해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이나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이었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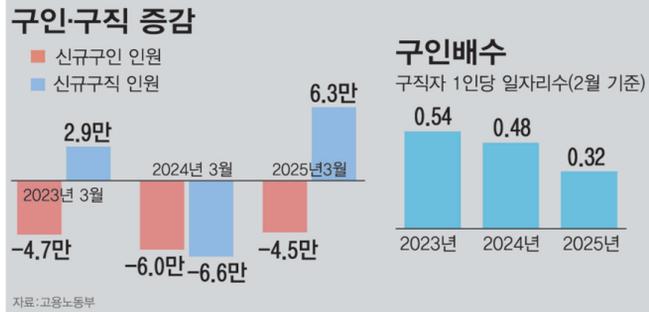
이에 대해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제조업 수출이 1월에는 약 10% 감소했다 2월에 0.7% 증가하고, 3월에 3.1%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증가했는데, 이 역시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많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



자료: 고용노동부 25.04.07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순감소하는 추세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 등 전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반적인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으나,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되려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또 그동안 증가폭이 컸던 일반목적용 제조업도 지난해부터 감소로 전환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4000명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 허리인'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제조업(-1만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뉴시스



광주은행, 직접전력거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용대출 'RE100 SOLAR-LOAN'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 'RE100 SOLAR-LOA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2035년 RE1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SK이노베이션 E&S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RE100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은행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객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력 판매대금 등을 채권 양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80%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전력 공급계약의 거래단가(원/KWh)와 연간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대출기간은 전력 공급계약 범위 내 최대 20년까지

로 매월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고객별 최대 연 1.30%p(포인트)까지 제공 가능하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용등급별 차등 우대금리 연 0.60%p ▲담보비율별 차등 우대금리 연 0.40%p ▲기타 부수거래 및 영업점장 감면 우대금리 연 0.30%p 범위 내에서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3% ~ 최고 연 9.92%(2025.4.7.기준 변동금리) 수준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박문수 부장은 "RE100 전력시장 및 직접전력거래계약 확대에 대응하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도움 되고자 금번 대출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지역발전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니즈에 맞춰 고객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북구 골목형 상점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할인행사도 소비 회복에 나선다. 북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는 10일부터 15일까지 최소 5%부터 최대 10%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12·3 비상계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골목상권이 경제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획한 행사다.

'구 파면'에 불확실성 해소... 광주 골목상인들 할인행사

100여개 점포 참여... 오는 10일부터 15일 5~10% 할인 나서

할인 행사에는 북구 관내 골목형 상점가 소속 100여개 개별 점포가 참여한다. 업체 별로 할인 행사 기간과 할인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인회 측은 전국에서 광주 북구에 가장 많은 33개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고, 행사에 참여 상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인회는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상점 정보와 내용 등을 개별 골목형 상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 상점 안내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영길 기자

양충호 북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 회장은 "정치 상황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깊게 미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골목을 지키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시길 바라며,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신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금을 근

광주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대 200만원 지원

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하면 100만원, 6개월 때까지 근무하면 추가 100만원씩 1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구직자가 기간제·시간제인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현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는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설

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어야 한다. 신청은 10일부터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2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농협 광주본부, 매주 금요일 도농 상생장터 연다

11일 광주본부 주차장서 개장... 최대 50% 할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줄여 알뜰 소비를 돕는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를 매주 금요일 연다. 농협 광주본부는 11일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첫 개장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장터 개장에 앞서 본부는 지난 2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경제지원단과 관내 15개 농·축협 담당자, 광주시 유통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첫 개장하는 금요일 직거래 장터에 선 알뜰 장보기 특관 행사가 펼쳐진다. 지역 육성 품목인 방울토마토, 가지, 애호박, 부추, 풋고추 등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이상 할인판매 한다.

여기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인절미 나눔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담배품 홍보관 운영, 농산물 톨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홍보 행사가 이어진다. /유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